

H. Hesse와 현실 참여 문제

—「서한집」에 나타난 그의 신념과 행동—

김 석 도
(독문학과 교수)

I.

H. Hesse는 그의 동시대의 작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서한문을 남긴 시인이다. 그가 쓴 서한본은 이미 활자화된 것만도 7책이나 되고¹⁾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의 「서한집」(Briefe)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작가들의 서한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다수의 작가나 예술가들의 서한집은 이념이나 뜻을 같이하는 특정한 인물들, 즉 “정신적으로 대등한 상대자”²⁾와의 경기적인 문통 형식에 의한 문학적, 예술적 대답이나 사상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신분, 연령, 국적의 인물들과 부정기적으로 나눈, 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그것도 이상한 신뢰감을 진제로한私信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이 아주 특이하다. 더구나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이 공개를 염두에 두고 씌어진 것이 아니라 수신자만을 상대로 하여 쓴 개인적인 답장들이지만, 그것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전후한 격동기의 증언으로서 “시대사적인 가치”³⁾가 인정되어 그 중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공개한 것이다.

Hesse의 「서한집」에 등장하는 수신자들을 일별하면 시독의 초대 대통령인 T. Heuss, T. Mann, A. Gidé, R. Rolland 등 당대의 지도적 인물들을 비롯하여 저명한 학자, 예술가, 인문인들이 있는가하면 무명의 목사, 노동자, 대학생도 있고 전쟁 포로, 전직 나찌 여당원, 외국의 고등학생도 끼어 있으며 심지어 자살한 한 청년의 어머니도 있다. 그리고 수신자들의 국적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요르단, 일본 등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Hesse는 한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당대에 보기 드문 놀라운 영향력”⁴⁾을 행사한 인물임에 틀림없

1) Hesse의 「서한집」(Briefe)은 1951년에 초판이 1959년에 94통이 증보된 재판이 출간되었고, Hesse 타계 후 Ninon 부인에 의해 다시 137통이 추가된 특별판(Briefe, Erweiterte Ausgabe)이 나왔으며, 1973년에 Hesse의 차남 Heiner에 의해 편집된 「서한 전집」(Gesammelte Briefe) 중의 제 1권이 간행되었음. 이밖에도 R. Rolland, T. Mann, H. Voigt와의 「왕복 서한집」이 있음.

2) B. Zeller: Hermann Hesse. S. 146.

3) ebd. S. 146.

4) ebd. S. 145~S. 146.

다. 이렇게 국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조언, 교시, 해명, 도움을 간청하는 편지들이, Hesse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온갖 종류의 비참함이 끊임줄 모르는 강물”⁵⁾처럼 그에게 밀어닥쳐 눈명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그는 괴로움을 호소하면서도 그의 하루의 작업 과제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답장 쓰기를 그의 존재와 작업의 의미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증거”⁶⁾로 간주하여 꾸준히 성실하게 밀고 나갔다. 그의 편지는 형식적인 미사여구가 없고 매우 명확하며 아주 직선적이기로 평평이 나 있다. 그는 대체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비판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통렬하게 반성을 촉구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충고나 협력의 요청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도자로서 삶에 대한 처방이나 인생 문제에 대한 비법을 들려준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취하지 않고 다만 그런 호소나 간청에 대해서 협력의 각오, 공동의 책임의식, 교육자와 같은 의지로서 대응하며 함께 삶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밝은 미래에의 길을 모색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Hesse의 「서한집」의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종류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수신자들의 신상 분제에 대한 응답이거나 그의 작품 내용에 관한 답변 등 비정치적인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전이나 전후에 적심한 정신적 갈등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대한 조언과 시국 문제와 관련된 그의 태도에 대한 격렬한 항의와 비난에 대한 그의 견해 표명 등 사회 및 정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독일의 국수주의적 진로에 대한 그의 비판적 언동, 전쟁 중에 취한 그의 중립적 태도, 전후의 이태올로기 문제에서 보인 그의 초연한 입장을 둘러싼 비난이나 지지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런 반응 속에 확고부동한 세계관에 의지하여 격동의 20세기를 헤쳐 나온 그의 모습, 그의 의식과 신념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서한문들은 그의 모습을 비유나 상징이라는 의상 속에 감추고 있는 그의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Hesse는 그의 「서한집」(Briefe)에서 자신을 “까다로운, 냉소받는 개인주의자”⁷⁾ 또는 “큰 기구의 하나에 자신을 통제받게 할 생각이 없는 늙은 개인주의자”⁸⁾라고 부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이런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서한집」에 나타난 그의 신념과 주장은 철저하

5) ebd. S. 145(재인용).

6)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S. 161.

7) Briefe, An den Vertreter einer deutschen Kulturgesellschaft. Gesammelte Schriften Band 7(이하 G.S. Bd. 7로 略記함) S. 723.

8) Briefe, An André Gide. G.S. Bd. 7. S. 776.

개 개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Hesse는 일생 동안 어떤 단체나 기구에도 가입하지 않고 어떤 주의나 행동에도 동조하지 않는 것을 그의 생활신조 중 으뜸가는 철칙으로 지켜왔다. 이런 태도는 그것이 웬 클럽같은 문화단체이거나 세계평화를 위한 협회이거나 원폭금지 운동이거나 간에 예외가 없었고 심지어는 강제로 등록된 예술원으로부터도 스스로 탈퇴할 정도로 철저했다. 그러나 그의 개인주의는 개개의 인간에 대한 의경,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에게는 국가나 집단보다 언제나 개인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서한집」에 나타난 그의 기본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단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개개인의 영혼 속에 진리, 정의, 평화, 사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어 그것이 모든 선의의 운동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가로 집약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서한집」에서 그가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집단이나 기구이다. 집단이나 기구의 특성은 우선 그 구성원의 개성을 극소화시켜 그것을 균일화 또는 획일화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 속에서는 개체는 붕괴되고 인간은 상실된다.”⁹⁾ 그가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으로서의 인간”¹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의 생리를 분석하여 그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집단의 최면으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한 젊은 예술가에게”(An einen jungen Künstler) 쓴 편지에서 그는 집단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Es gibt nun in der Welt von heute auch noch eine andere Forderung an den Menschen, die von Parteien, Vaterländern oder Weltmorallehren propagiert wird. Es ist die Forderung, daß der Mensch auf sich selbst und auf die Idee, es könnte mit ihm etwas Persönliches, Einmaliges gemeint sein, vollkommen verzichte, daß er einem Normal- oder Idealmenschentum der Zukunft sich anpassen, ein Rädchen in der Maschine, ein Bausteinchen unter Millionen vollkommen ihm gleicher Bausteinchen werde.¹¹⁾

Hesse는 이런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무조건 불신하고 거부한다. 그는 자동 인형처럼 규격화된 인간들의 집합체가 불순한 세력의 도구가 되어 뱀음이나 평화 쪽으로 보다 광신이나 전쟁 쪽으로 오도된 역사적 선례들을 알고 있었고 그 실례를 1차 세계대전에서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그래서 Hitler가 정권을 장악하자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거대한 집단의 발호를 예견했고 ‘투쟁’이나 ‘혁명’이나 하는 단어들만 갑자기 유행병처럼 번지자 나치즘의 혁명적 세계관에 대해서 “나는 세계의 모든 변혁을,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일견 소망스럽고 정당한 것이든 간에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습니다.”¹²⁾라고 자신의 태도를 선명하게 표명했다. 그리고 또 “한 젊은 친척에게”(An einen

9)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S. 165.

10) Briefe, An R.J. Humm, Zürich. G.S. Bd. 7. S. 610.

11) Briefe, An einen jungen Künstler. G.S. Bd. 7. S. 680.

12) Briefe, An R.J. Humm, Zürich. G.S. Bd. 7. S. 550~S. 551.

jungen Verwandten)라는 題下의 편지에서는 “프로그램이나 규격화된 ‘주의’는 인간을 한 없이 어리석게 만든다.”¹³⁾라고 전제하고 인류사에는 수 세기 동안 수 천의 ‘주의’, 당파, 프로그램, 혁명이 있었고 그것들은 세계의 변화나 전진에 기여한 실적이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나 신조 중 그 어느 것도 그 시대를 뛰어 넘어 지속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소수의 참다운 예술가나 현자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말이나 업적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국수주의적인 교사로부터 ‘투쟁’을 사주받고 있는 Köln의 한 소녀에게 쓴 답장에서는,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며 찬미해 왔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 단어처럼 고귀하게 가슴설레게 하는 말은 없지만 결국 이 말 속에는 젊은이들과 나치즘을 하나로 묶으려는 무서운 저의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이런 ‘투쟁’ 중 가장 나쁜 형식이 바로 “국가적으로 조직된 형식”¹⁴⁾이라고 단정하여 나치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비투쟁적인 모든 것, 품위있게 피로와하는 모든 것, 조용하면서도 탁월한 모든 것”¹⁵⁾을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편지에 의하면 Hesse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6년 전에 이미 전쟁의 위협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우려한 것은 바로 정신의 타락 현상이었다. 그는 정신이 권력에 예속되어 가는 징후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았다. 폭력에 의한 세계 변혁이 거론되는 그 자체가 그에겐 이미 정신이 지닌 질서의 향도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정신의 품위를 회복하는 것만이 전쟁을, 인류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에 대한 외경, 정신을 위한 봉사를 제창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발전이나 인류문화의 창달은 힘이나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창의력과 고뇌의 결집에 의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인생과 인생의 의미의 가능성”¹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그의 노력에서 우리는 시대의 혼란을 “끊임없는 날카로운 각성”¹⁷⁾과 통찰로써 직시하며 독자들과 함께 위기의 극복을 위해 고심한 그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의 발발과 함께 그에게 답지한 편지들은 그의 이런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지지의 내용보다도 오히려 비난과 매도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Hesse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탄핵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915년의 한 필화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포들로부터 이미 “민족 반역자”(Volksverräter)¹⁸⁾, “조국 상실자”

13) Briefe, An einen jungen Verwandten. G.S. Bd. 7. S. 601.

14) Briefe, An Fr. Anni Rebenwurz, Köln. G.S. Bd.7. S. 547.

15) ebd. S. 547.

16) Briefe, An Fr. G.D., stud. phil., Freiburg i.B. G.S. Bd.7. S. 490.

17)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S. 163.

18) B. Zeller(hrsg.): Hermann Hesse. 1877-1977 Stationen seines Lebens, des Werkes und seiner Wirkung. S. 360.

(Vaterlandsloser Gesell)¹⁹⁾로서 낙인찍혀 있었다. Hesse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전쟁을 설교하고 다니는 ‘정신적인 사람들’”²⁰⁾의 비이성적 호전적 태도를 보다 못해 그들에게 초국가적인 인류 이념과 세계시민 정신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글(O Freunde, nicht diese Töne!)을 Zürich의 한 신문에 발표했다. 이 글은 의외로 큰 파문을 던져 독일 국내의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친분이 두터운 예술계, 인문계, 출판계의 인사들로부터도 거센 반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Hesse는 후에 이 때의 충격과 절망감이 그의 생애에 “제2의 큰 변화”²¹⁾를 가져다 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하면서 “나는 나에게 바람직스럽고 이성적이며 좋게 여겨져 오던 것과 현실사이에 절망적인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²²⁾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고무적인 반응을 몰고 왔다. 인도주의를 부르짖다가 그의 조국 프랑스로부터 추방당한 Romain Rolland이 Hesse의 글을 읽고 감격하여 “특히 당신이 폭풍우 속에서 증오의 먹구름을 거두어주는 말들을, Beethoven의 구원의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듣고부터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²³⁾라고 적고 세계의 자유사상가들의 정신적 결속을 호소했다. Hesse는 답장에서, 자신은 “비정치적이고 아시아적인 수동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²⁴⁾ 평화에 대한 의지만은 적극적인임을 알렸다. 이 두 사람은 다같이 스위스에서 전쟁 포로의 구호사업에 참여했지만, Rolland은 세계 각국의 지도적 인물에게 인류의 평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반전 운동을 전개한 반면에 Hesse는 이런 정치적 색채를 띤 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직 포로들을 위한 문고, 신문, 통신의 편집에만 몰두하여 두 사람의 행동 양식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양자의 행동은 다같이 인도주의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진자가 투쟁적 적극적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한데 반하여 후자는 비투쟁적 소극적 방법으로 그것을 체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Hesse의 태도는 그의 사촌 W. Gundert의 충고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34년에 동경에 체류하고 있던 Gundert로부터 이런 ‘위대한 시대’에서는 마땅히 자기 국민의 편에 서야만 한다는 일종의 충고 편지를 받고 Hesse는 “큰 소리로 외칠 때 함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유대인과 정신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와 인도주의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강령에 따라서 함께 증오하는 것으로써는 국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민’에 대해 ‘위대한 시대’란 사실 언제나 증오와 전쟁의 준비가 완료된 시대이다.”²⁵⁾라고 반박하고 자기 국민의 편에 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정신, 사랑, 인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백한 詩「신념」(Gesinnung)을 읽어 보라

19) ebd. S. 364.

20) Briefe, An Herrn F.v.W., Waldenburg. G.S. Bd.7. S. 503.

21) Traumfährte, Kurzgefaßter Lebenslauf. S. 83.

22) ebd. S. 84.

23) Hermann Hess/Romain Rolland: Briefe. S. 9.

24) ebd. S. 17.

25) Briefe, An Wilhelm Gundert, Tokio. G.S. Bd.7. S. 564~S. 565.

고 권유하고 있다. 1933년에 발표한 이 詩는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운문으로 씌어진 짙박한 그의 신앙 고백서같은 인상을 준다. Hesse는 이 詩에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정신의 似姿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실한 동경은 바로 영원한 정신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은 지금 비록 죄, 죽음,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의 동경에 의해서 至高한 상태, 즉 “빈고 희망하는 사랑”²⁶⁾의 경지에 도달하여 “참을성있는 사랑”²⁷⁾, “사랑하는 인내”²⁸⁾로써 불신, 분열, 실패, 증오를 뛰어넘어 신성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언제나 그에겐 모든 것을 용해하여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었고 “일체의 우월성”²⁹⁾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능력”³⁰⁾을, “고통 속에서도 미소할 수 있는 모든 능력”³¹⁾을 의미했다. Hesse가 그의 작품 속에 그리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이 「서한집」에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인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런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1932년에 Hesse는 요르단의 M.A. 박사로부터 “시인의 사명”(Die Sendung des Dichters)에 관한 공개 질의 형식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선, “시인 자신은 다만 한 예감자, 한 고뇌자에 지나지 않습니다.”³²⁾라고 전제하고 독자들이 시인을 신뢰하여 그에게 ‘지도’나 ‘예지’를 강요하더라도 품위있게, 용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시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시인은 결코 인생의 智者도 司祭도 아니라는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개진했다. 이와 아울러 그는, 자신의 문학 속에 표명된 일관된 신념은 인간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유일무이하게, 독단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영혼 속에서 그런 의미를 스스로 예감하고 파악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고 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투철한, 그러면서도 아주 소박한 사명 의식에서 우리는 자신의 독자들 개개인의 인격과 그 가능성에 대해 품고 있는 그의 존경과 신뢰감을, 그리고 또 인생의 시련이나 시대의 고난을 극복함에 있어서 자신의 교시나 예지로써가 아니라 직접 독자들과 함께 고뇌하며 모색한다는 그의 진지한 자세와 열의를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Hesse는 이 「서한집」에서 수신인들에게 “인생의 극복자로서, 강자로서, 碎波 속의 바위로서”³³⁾ 말하고 있지 않고 “고뇌 속에서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서, 인간성의 수호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으로서”³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서한집」은 한 시인이 독자들을 계도하거나 훈도하는 목적으로 씌어진 책이 아니라

26) Die Gedichte, Gesinnung. S. 407.

27) ebd. S. 407.

28) ebd. S.407.

29) Betrachtungen, Der Weg der Liebe, G.S. Bd.7. S. 136.

30) ebd. S. 136.

31) ebd. S. 136.

32) Briefe, An Dr. M.A., Jordan. G.S. Bd.7. S. 532~S. 533.

33)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S. 161.

34) ebd. S. 161.

한 고뇌자가 다른 고뇌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내용의 책이다.

3.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공식적인 독일’에 대한 Hesse의 규탄은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그는 독일의 “정치적 우매성, 허위, 미숙성”³⁵⁾을 비난하기도 했고 독일식의 국가주의를 “시대에 뒤떨어진 감상주의”³⁶⁾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젊은이의 4분의 3이 Hitler와 그의 어리석은 상투어를 믿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그 길이 거의 막혀 있다.”³⁷⁾라고 지식인들의 무력함을 한탄했고, 다시 또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결코 구습에 따르거나 허위의 공화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소수의 사색인들은 아주 명백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망상을 함께 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성실과 진리를 대변하여 조용히 정치를 보이코트해야 한다.”³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때는 사랑, 인도주의, 형제 의식이 결여된 시대를 개탄했고, 또 어떤 때는 공동의 책임 의식이 전혀 없고 “도덕적 경화와 양심의 혁신”³⁹⁾에 동한한 그의 동포들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의 “더없이 어리석고, 더없이 동물적인 정치적 충동”⁴⁰⁾이 어떻게 ‘세계관’으로서 미화될 수 있는가 하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런 그의 과격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Hesse의 저서는 전쟁 초기의 나치의 문화, 언론 탄압의 와중에서 이례적으로 합법적인 금지나 소각 처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B. Zeller의 보고에 의하면, Hesse의 저서는 제 3 제국시대에도 꾸준히 발매되고 있었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 20책의 그의 저서가 48만여부나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매우 두터운 독자층이 10여 년 동안 이 시인에게 신의를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Hesse도 자신의 저서가 당국의 직접적인 탄압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독일 내의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보낸 공감”⁴²⁾ 때문이었다고 후에 회고했다. 그러나 나치 당국이 이미 그들의 “원하지 않는 작가 명단”(Liste der unerwünschten Literaten)에 이름이 올라있는 Hesse의 저서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만은 않았다. Hesse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교묘한 “다른 압박 수단”⁴³⁾을 동원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한 방법은 중판에 대한 용지 허가권 철회이

35) Briefe, An Herrn A. St., Jugendburg, Sauerland. G.S. Bd.7. S. 540.

36) ebd. S. 539.

37) ebd. S. 539.

38) ebd. S. 537.

39) Briefe, An Frau E.L., Stuttgart. G.S. Bd.7. S. 536.

40) Briefe, An R.J. Humm, Zürich. G.S. Bd.7. S. 611.

41) B. Zeller: Hermann Hesse. S. 120 참조.

42) Briefe, Glückwunsch für Peter Suhrkamp. G.S. Bd.7. S. 781.

43) ebd. S. 782.

거나 저서 내용에 대한 간접적인 삭제 요구였다. 1차 세계대전 때 발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난 그의 반전적 평론집 「Betrachtung」이 바로 전자의 방법에 의해 희생되었다. 나찌 당국은 이 책이 매진되자 증판에 대한 용지 할당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Hesse의 57년 간의 독서 체험과 견문을 담고 있는 「세계문학 문고」(Eine Bibliothek der Weltliteratur)는 후자의 방법에 의해 절판된 첫 케이스였다. Hesse는 출판사 측으로부터 이 소책자에 대해 “‘시류’에 적합한 약간의 변경”⁴⁴⁾을 제의받고 그것이 곧 이 책에 나오는 유대인 작가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당국의 압력임을 간파하고 Reclam사의 사주에게 서면으로 시대의 취향이 그것을 요구해도 “나는 내 에세이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중요한 것을 제거하지 않겠습니다.”⁴⁵⁾라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여 스스로 이 책의 절판을 감수했다. 그 후 다시 그의 장편소설 「나르찌스와 골트문트」(Narziss und Goldmund)에서 유대인 박해가 묘사된 대목을 지우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Hesse는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곧 굴복이라고 생각하여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소설이 독일의 書肆街에서 자취를 감추는 비운을 자초했다. 이렇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나찌의 탄압 정책에 맞섰던 그에게도 단 한 번의 예외는 있었다. 유대인과 망명 작가에게 바친 헌정시가 많이 수록된 그의 시집 「밤의 위안」(Trost der Nacht)이 다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때, Hesse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 시집으로부터 “미적 결함을 제거하라”⁴⁶⁾는 요구에 승복하여 문체된 헌정시의 삭제에 동의했다. Hesse는 이 시집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애착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답지 않은 양보였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판물의 인세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Hesse는 경제적으로 매우 팍박한 처지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국이 어수선해지면서부터 그의 집은 망명객의 피난처가 되었다. T. Mann, M. Hermann-Neiße, B. Brecht, H. Wiegand, M. Buber, C. Schrepf 등의 많은 인사가 망명길에 그의 집을 찾았다. Hesse는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평생 동안 지켜온 신조를 버리고 스위스 저작가 협회에까지 가입했다. 이런 그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의 빈객들과의 오랜 우정 관계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망명이 결코 일신상의 안전과 안일을 위한 도피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매도되지 않는 고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의거임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T. Mann은 후에 이 때의 기억을 더듬어, 그 당시 Hesse가 자신에 앞서서 선회하고 있던 “혼의 자유”⁴⁷⁾와 그가

44) Briefe, An den Verlag Philipp Reclam jun., Leipzig. G.S. Bd.7. S. 582.

45) ebd. S. 582.

46) Briefe, Glückwunsch für Peter Suhrkamp. G.S. Bd.7. S. 782.

47) B. Zeller: Hermann Hesse. S. 114(재인용).

독일의 정치로부터 유지하고 있던 “철학적인 거리”⁴⁸⁾가 무척 부러웠다고 밝히고 그와 나는 대화가 자기에겐 더없이 큰 위안이며 구원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 후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악화되어 갔고 Hesse의 책상 위에는 독일에서 날아 온 온갖 모욕적인 내용의 두서들만 산더미처럼 쌓여 나갔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의 비판도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지 갑자기 그의 「서한집」에는 시국에 관한 내용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의 편지들은 거의 그의 작품 내용에 관한 해설로써 채워져 있다. 이 기간에 받은 편지의 양도 엄청나게 많았겠지만 그 대부분이 친편일률적으로 그를 매도하는 내용이어서 그의 작품 내용에 관한 문의 이외의 서신에 대해서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대신 Hesse는 자신의 참담한 기분과 비애를 그의 시에 토로했다. 1944년에 발표한 「비애」(Traurigkeit)에서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기분을 이렇게 읊었다.

Der Himmel hat nicht Sterne,
Das Herz nicht Liebe mehr,
Es schweigt die graue Ferne,
Die Welt ward alt und leer.

Wer kann sein Herz behüten
In dieser bösen Zeit?
Es fallen Blüten um Blüten
Vom Baum der Traurigkeit.⁴⁹⁾

그리고 같은 해에 쓴 「만년의 시련」(Späte Prüfung)에서는 “세계와 나의 생활은 풀 한 포기 없는 산이 되고 바위 부스러기들만 덩구는 빈터가 되었다. 영혼의 밑바닥에 버티며 저항할 강단이 없으면, 고뇌는 빛으로 향하리라는 신념이 없으면 난 울면서 굴복하리라.”⁵⁰⁾고 침통하게 고백했다.

그러나 그가 침묵이나 절망의 토로에만 사로잡혀 있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했다. 그에게는 독일에 남아서 야만적인 집단과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정신적으로나마 격려해주는 문제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Hesse는 그의 창작을 통해 나찌즘과 경반대의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미래의 세계상을 제시하기로 결심하고 「유리알 유희」(Das Glasperlenspiel)의 집필에 착수했다. Hesse는 1955년에 Rudolf Pannwitz에게 쓴 편지에서 “독일어 작가의 육체적, 정신적 생존에 대한 위협과 위협 속에서 나는 모든 예술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 즉 창작을 손에 잡았다.”⁵¹⁾고 밝히고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세계의

48) ebd. S. 114(재인용).

49) Die Gedichte, Traurigkeit. S. 471.

50) Die Gedichte, Späte Prüfung. S. 469.

51) Brief an Rudolf Pannwitz. In: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as Glasperlenspiel”. 1. Band. S. 295~S. 296.

중독으로부터의 자신의 수호와 야만적인 세력에 항거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정신적 지원에 있었다고 알렸다.

Es galt für mich zweierlei: einen geistigen Raum aufzubauen, in dem ich atmen und leben könnte aller Vergiftung der Welt zum Trotz, eine Zuflucht und Burg, und zweitens den Widerstand des Geistes gegen die barbarischen Mächte zum Ausdruck zu bringen und womöglich meine Freunde drüben in Deutschland im Widerstand und Ausharren zu stärken.⁵²⁾

중전 후 최초의 Goethe상과 Nobel 문학상이 동시에 그에게 수여된 것은 그의 신념과 행적에 대한 독일과 세계의 최초의 공식적인 시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쟁 중에 보여준 시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그의 투철한 책임 의식, 시대 정신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투사와 비판, 초시대적 정신에 대한 그의 봉사 의지, 그리고 국제시민으로서 그가 보여준 인도주의적 태도 등이 이 두 대상을 그에게 안겨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수상 동기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시적으로 결정시킨 「유리알 유희」의 높은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인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Goethe상의 수상은 어디까지나 Hesse에 대한 독일의 공식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양식있는 어른은 전시에 보여준 Hesse의 선견지명과 일관된 태도를 제평가하여 전후의 새 독일 건설과 국민의 재교육에 그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전혀 “반성과 개전의 내적 가능성”⁵³⁾을 보이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패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고 있는 축에서는 Hitler의 학정과 전쟁의 공포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중립국이라는 무풍지대에서 조국을 비방한 사람은 새로운 독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할 권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esse는 전후까지도 종식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이런 비난과 증상에 대해 “독일에서 온 모욕적인 편지들에 대한 답장”(Antwort auf Schmähbriefe aus Deutschland)이라는 공개 서한에서, “많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괴로와하고 있는 국민에게서 그들이 뭔가 배우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고난과 굴욕의 시대보다 더 통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과연 있을지 나는 모른다”⁵⁴⁾라고 분명히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Hesse 자신도 Goethe상의 수상 소감에서 “1차 세계대전 이래 이 중잡을 수 없는, 위대하고 번덕스러운 독일 국민과 나의 관계는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처럼 뒤엉켜 서로 상처입히며 거북했던가!”⁵⁵⁾라고 실तो하고 있듯이, 이 양자의 긴장 관계는 30여년이 넘도록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Hesse는 1813년의 독·불 전쟁에서 Goethe가 보여준 순수한 이기주의, 다시 말해 “초국가적 인류 이념”⁵⁶⁾에 입각한 초연

52) ebd. S. 295~S. 296.

53) Briefe, An Herrn L.E., Wietze. G.S. Bd.7. S. 654.

54) B. Zeller: Hermann Hesse. S. 151(재인용).

55) Betrachtungen, Danksagung und moralisierende Betrachtung. G.S. Bd.7. S. 456.

56) Betrachtungen, O Freunde, nicht diese Töne! G.S. Bd.7. S. 47.

한 자세가 그의 행동의 지표였음을 상기하면서 그의 사표인 Goethe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Hesse는 자신에 대한 독일 국내의 분분한 여론을 일축하고 Nobel상의 受賞辭에서 이 상이 자신에게 수여된 의미를 초국가적인 정신이나 인류 평화에 대한 자신의 미미한 기여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독일어와 독일의 공헌에 대한 세계의 승인이라는 점에서 찾아 그의 깊은襟度와 초월적인 자세를 독일 국민 앞에 보여 주었다.

...Doch bin ich geistig ungebrochen und fühle mich Ihnen allen vor allem durch den Gedanken verbunden, welcher der Stiftung Nobels zugrunde liegt, den Gedanken von der Übernationalität und Internationalität des Geistes und seiner Verpflichtung, nicht dem Kriege und der Zerstörung, sondern dem Frieden und der Versöhnung zu dienen. Darin, daß der mir verliehene Preis zugleich eine Anerkennung des deutschen Beitrags an die Kultur bedeutet, sehe ich eine Gebärde der Versöhnlichkeit und des guten Willens, die geistige Zusammenarbeit aller Völker wieder anzubahnen.⁵⁷⁾

이 축하 속에는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두 진영이 가슴을 열고 화합의 마음으로 서로 제휴하여 정신적인 공동작업을 전개해 나가며 인류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바라는 Hesse의 열망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의 염원대로 전후의 세계가 이런 길을 걸어나갈 때에만 인류는 엄청난 파괴와 손실을 초래한 지나간 전쟁에서 최소한의 의미나마,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Hesse는 20세기가 앓고 있는 두 가지 정신적 질병을 “국가주의의 과대망상”(Größenwahn des Nationalismus)⁵⁸⁾과 “기술의 과대 망상”(Größenwahn der Technik)⁵⁹⁾이라고 진단하고 20세기만이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른 것은 바로 이 시대병 탓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신병은 전후에도 좀체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가 거듭할수록 그 증세가 더욱 깊어만 갔다. 기술문명은 갖가지 부작용을 낳으며 고도 산업사회 시대의 문을 열었고 세계에는 다시 민족 간에 새로운 반목과 알력이 조성되었으며 블럭 간에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격화되어 갔다. 이렇게 국제 관계가 적대적인 감정과 냉전으로 긴장되면서부터 온갖 이념과 명칭의 정치, 사회, 문화 단체나 회의로부터 Hesse에게 가입이나 참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 그를 당혹케하고 괴롭혔다. 이런 성가신 요구들은 그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다름없었다고 Hesse는 한 편지⁶⁰⁾에서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그 취지

57) Betrachtungen, Worte zum Bankett anlässlich der Nobel-Feier. G.S. Bd.7. S. 454~S. 454.

58) Betrachtungen, Danksagung und moralisierende Betrachtung. G.S. Bd.7. S. 457.

59) ebd. S. 457.

60) Briefe, An einen schwäbischen Schulkameraden. G.S. Bd.7. S. 704 참조.

와 명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일체의 단체, 회의, 운동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철저한 비행동 원칙은 일부의 진보주의자들이나 행동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Hesse는 시인으로서 자신은 “관찰자”(Betrachtender)이어야 하지 결코 “행동하는 사람”(Handelnder)이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⁶¹⁾ 그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오직 창작이어야만 하고 그의 관찰은 이 창작을 통해서만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을 통하지 않는 그의 행동은 시인으로서의 자기 상실을 의미했다. 그의 이런 행동 철학의 진형적인 한 실례를 우리는 Max Brod와 Hesse의 서신 교환에서 찾을 수 있다. Kafka 작품의 간행자인 Brod는 신생 독립국가인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주위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유대인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1948년 5월에 Hesse에게 국제적 명성을 지닌 작가들을 규합하여 세계 여론에 호소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Brod의 편지에 의하면 그 당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는 Novalis나 Kafka의 미발표 유고 등 귀중한 문헌과 문화재들이 상당수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다. Brod가 다른 작가들을 제쳐두고 Hesse에게 호소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Nobel상 수상 직후의 Hesse의 세계적 명성과 영향력이 고려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Hesse가 대전 중에 독일의 유대인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유대인 종교 학자이며 작가인 M. Buber와 Hesse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 뿐만 아니라 Kafka가 독일 문학계로부터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던 때에 그의 산문적 재능을 가장 먼저 높이 평가한 사람이 바로 Hesse이었다는 점등이 감안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Hesse는 Brod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Hesse는 「변명의 시도」(Versuch einer Rechtfertigung)라는 題下의 공개 서한에서, 먼저 자신은 ‘정신적인 사람들’의 결합이나 ‘문명 세계’의 선의에 대해 불신한다는 점을 밝히고, 열 명 또는 백 명의 일급 인사들이 권력자에게 보내는 탄원의 결과는 언제나 자명하며 의견상 그럴 듯한 정신적 행위나 지상의 지배자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경고는 오히려 정신의 품위만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것은 Brod의 호소를 거절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Hesse 자신의 과거의 쓰라린 체험에서 얻은 하나의 확신이었다. R. Rolland에게 보낸 1938년 3월의 한 편지에 의하면⁶²⁾ Hesse 자신도 죄없이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두 인물을 구출하기 위해 Rolland에게 간청하여 Stalin에게 구명 탄원서를 쓰게 했지만 Stalin으로부터 전혀 응답이 없어 심한 모욕과 환멸을 느꼈었다. 그때부터 Hesse는 문학만이 그의 유일한 행동 영역임을 절감했다. 이런 과거의 기억때문에 그는 Brod에게 “우리는 설교하거나 명령하거나 간청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명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에 대해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⁶³⁾라고 충고하면서 정신적인 사람은 대

61) Briefe, An Dr. Otto Engel, Stuttgart, G.S. Bd.7. S. 649 참조.

62) Hermann Hesse/Romain Rolland: Briefe. S. 109 참조.

63) Betrachtungen, Versuch einer Rechtfertigung. G.S. Bd.7. S. 466.

중 위에 단기간의 권력을 구축하고 단사를 수와 양으로써 조작하는 정치가와와는 다른 “경기 규칙”(Spielregel)⁶⁴⁾을 지켜서 거기에 따라야 하며, “정신적 실체의 옹호자이며 말과 진리에의 봉사자들”⁶⁵⁾인 작가가 지켜야 할 무율은 현실 정치가들의 그것보다 더욱 고귀한 무율, 즉 “진실한 무율”⁶⁶⁾, “영원하고 신성한 규칙”⁶⁷⁾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신성한 무율을 가진 자신들이 다른 경기 규칙에 따르거나 또는 그것과 타협하는 행위는 그것이 어떤 명분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신도 1차 대전이래 “자신 속에 싹튼 책임의식”⁶⁸⁾ 때문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가면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혀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인으로서 독자들에게 “인간성의 신성한 근본 명령”⁶⁹⁾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Hesse는 Brod의 인도주의적 호소마저 자신의 행동 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Brod의 편지와 자신의 담장을 「변명의 시도」라는 표제 하에 묶어 발표함으로써 Brod의 고귀한 뜻을 세상에 공개하여 간접적이거나 그를 지원하려는 깊은 배려를 잊지 않았다. 이 작은 사건은 우리에게 Hesse가 그의 체험이나 신념을 창작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속으로 투사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구상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Hesse는 종전 후 발표한 그의 첫 「연두사」(Ansprache in der ersten Stunde des Jahres 1946)에서 전쟁의 극심한 고난이 인류에게 준 가장 값진 교훈은 이웃간이나 나라간의 사랑의 소중함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모두 속에 유일한 神이 살아 있고 지상의 모든 지점이 우리에게 고향이며 모든 인간이 우리의 혈연이고 형제라는 것, 그리고 이런 신성한 자각이 종족, 국민, 종파, 당파, 빈부여로의 분열을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폭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착해야 할 점이다.”⁷⁰⁾라고 역설하면서 세계의 화합과 결속을 호소했다. 그는 또 神은 결국 국민, 조직, 동맹과 같은 집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선의의 인간들 개개인에게 대해서만 “세계 비밀의 일부”⁷¹⁾를 열어 주고 밝은 미래를 위임한다는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피력하고 이 「연두사」의 끝을 신평이나 증오가 아니라 ‘참을성 있는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밝힌 그의 詩 「신념」(Gesinnung)의 일절로써 장식했다. 이 「연두사」에 시사되어 있듯이 Hesse의 세계관은 개개 인간의 선의와 사랑에 의한 세계 개선에서 출발하고 그의 창작은 바로 이런 세계관의 구현을 궁극적인 지표로써 추구하고 있다. 다시

64) ebd. S. 466.

65) ebd. S. 466.

66) ebd. S. 466.

67) ebd. S. 466.

68) ebd. S. 467.

69) ebd. S. 467.

70) Betrachtungen, Ansprache in der ersten Stunde des Jahres 1946. G.S. Bd.7. S. 429.

71) ebd. S. 430.

말하면 조직적인 사회의 힘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개의 인간들 가슴 속에 어떻게 하던 사랑의 작은 불씨를 심어 주어 그것을 다시 어두운 세계를 밝혀 줄 햇불로 피워올릴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그의 문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런 과제의 실현만이 그에게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간접적인 현실 참여에의 길인 것이다. 그의 이런 의식이나 신념에서 우리는 Hesse의 순수한 의지와 함께 그 한계성도 엿볼 수 있다.

5.

Hesse의 현실 참여 방법이나 그 공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많다. 우선 그와 같은 영향력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은둔자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옳은가, 사회에 더욱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더 뜻깊은 생존방법이 있을 수 없는가 하는 따위의 반문에서부터 그의 행동과 창작이 독일의 고유한 정신적 생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는 등의 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Hesse는 그의 창작 활동의 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독일의 문학과 공식적인 접촉을 가지지 않았고 잡지 편집이나 문학 강연 등의 공동 활동도 완전히 외면해 왔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원이나 펜 클럽, 그밖의 문학적 서클과도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더구나 인생의 후반기에는 거의 여행도 하지 않았고 제한된 인물들과의 개인적인 교류 이외에는 일체의 사교적 활동도 멀리했다. 그는 자신을 곧잘 “獨行者”(Einzelgänger) 또는 “은자”(Einsiedler)라고 부르며 Lugano호반의 한 벼촌에 숨어 외로운 창작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유리된 고고하고 유유자적한 안락의 삶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은둔처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의 동시대의 뛰어난 지성인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빈번히 가졌고,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방명자들에게 선풍 자신의 거소를 피난처로 제공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 친필의 詩畫들을 들고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며 모금운동을 했고, 스위스에 억류되어 있는 독일의 전쟁 포로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마저 내던진 적도 있었다. Hesse는 공중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하고 일반 대중과의 상면도 꺼렸지만 독일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의 독자들과는 작품을 통해서 또는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천 가닥의 실”⁷²⁾으로써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화에 휩싸였을 때 그에겐 중립국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창작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세계의 위기와 고난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는 “두드러지게 깨어 있는 양심과 섬세하고 민감한 감수성으로써”⁷³⁾ 세계의 불행을 가슴에 안고 불행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더 격렬

72) B. Zeller: Hermann Hesse, S. 151.

73) ebd. S. 148.

하게 더 철저하게”⁷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앓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파국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할 때 그는 오히려 그 책임의 일단을 자신에게 지우고 세계가 이런 공동의 죄의식 위에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자고 호소했다. 그래서 Hesse는 양심이 마비된 시대에 진실로 “최악에 아픔을 느끼는 양심”⁷⁵⁾을 보여 주었고 스스로 되뇌던 “시인은 그 주위 세계의 양심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지침, 곧 지진계이어야 한다.”⁷⁶⁾는 자신의 신념을 말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는 그를 향해 “돈으로 산 스위스 기질을 방패로 삼아 고투의 한 가운데 있는 자기 국민을 버렸다”⁷⁷⁾고도 매도했지만, 그는 독일을 위한 편협한 애국자가 되기 보다는 조국의 위기에서도 목전의 현실보다 영원한 것을, 독일적인 것보다 세계적인 것을 위해 헌신한 Goethe처럼⁷⁸⁾ 세계 시민을 위한 애국자의 길을 택했다. Hesse는 “獨行者”이기를 스스로 원했지만, 그렇다고 일부의 지적처럼 그의 영혼의 고품이 “민족 고유의 독일적 생성”⁷⁹⁾이나 “생성해가는 독일 공동체의 성장력”⁸⁰⁾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킨 것은 아니다. 그는 “정치적인 독일”⁸¹⁾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언어, 문학, 문화의 독일에 대해서는, Hesse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은밀한’ 독일”⁸²⁾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뢰와 자부심을 느꼈다. Hesse는 독일의 문학, 철학, 음악 속에 단면히 이어져 내려온 독일 고유의 정서와 ‘섬세하고 순수한 민족혼’⁸³⁾을 계승하여 그것을 발전적으로 현대 속에 재현하려고 노력했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독일 정신의 은밀한 흐름을 믿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젠가 이 국민으로부터 끊임없는 조용한 강물이 흘러나와 다시 세계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⁸⁴⁾ 라고 독일 정신의 세계 문화에의 기여를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Nobel상 수여를 “문화에 대한 독일어와 독일의 공헌의 승인”⁸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Hesse에게 “최선의 독일 정신의 상속자”⁸⁶⁾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은 R. A. Schröder의 견해나, Hesse야 말로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깊이 알아서 새로운 것 속으로 끌어들이는 시인이다 라고 한 T. Mann의 지적⁸⁷⁾

74) ebd. S. 148.

75) T. Mann: Hermann Hesse zum 70. Geburtstag. In: Neues und Altes. S. Fischer Verlag 1961. S. 212.

76) Briefe, An Robert Mälcher, Bern. G.S. Bd.7. S. 605.

77) B. Zeller: Hermann Hesse. S. 121.

78) Betrachtungen, O Freunde, nicht diese Töne! G.S. Bd.7. S. 48 참조.

79) B. Zeller: Hermann Hesse. S. 120.

80) ebd. S. 120.

81) Briefe, An Landesbischof Th. Wurm, Stuttgart. G.S. Bd.7. S. 466.

82) Briefe, An Herrn F.L., Zürich. G.S. Bd.7. S. 608.

83) Briefe, An Frau R.R., Gießen. G.S. Bd.7. S. 741.

84) Betrachtungen, Das Reich, G.S. Bd.7. S. 131.

85) Betrachtungen, Worte zum Bankett anlässlich der Nobel-Feier. G.S. Bd.7. S. 454.

86) B. Zeller: Hermann Hesse. S. 121(재인용).

87) T. Mann: Hermann Hesse. Einleitung zu einer amerikanischen 「Demian」-Ausgabe. In: Gesammelte Werke Bd. XIII. S. Fischer Verlag 1974. S. 454 참조.

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행동주의자들의 시각으로써는 Hesse의 현실 참여의 소극성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현실 참여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작가의 세계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작가마다 세계관이 다르듯이 그 행동 양식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집단보다 개인에 의한 세계 개선을 주장하는 Hesse는 개인의 옹호를 그의 창작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순수한 이기주의”⁸⁸⁾의 유지를 자기 존재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그에게는 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만이, 다시 말하면 “개인적, 정신적 생명의 불괴성”⁸⁹⁾을 보증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집단적인 행동, 공적인 성명이나 항의같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개개인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나 옹호가 그의 현실 참여의 폭을 제한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현재의 현상이나 시대 정신에 대한 그의 시각마저 좁힌 것은 결코 아니다. Hesse는 오직 자신의 법칙에만 따르고 자신의 책임으로 행동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체험과 모험을 향해 가슴을 열고 있었고 시대나 인간의 외면적 상황보다 그 내면과 본질을 깊이 투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야만적인 시대의 한 가운데에서도 인간에게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에도 소멸하지 않는 “놀라운 가능성”⁹⁰⁾을 발견하여 절망의 심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 가능성의 희망과 신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 「서한집」은 바로 세계가 갈망하고 있는 희망, 신념, 사랑을 직접 세계에 전달한 책이다. Hesse는 자신의 소임을 언제나 ‘전달자’로서 제한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한 젊은 동료에게”(An einen jungen Kollegen in Japan) 쓴 한 공개 서한에서 시인의 소임을 ‘빛을 전달하는 창’에 비유하면서 “시인은…빛도 아니고 햇불을 든 사람도 아닙니다. 시인은 기껏해야 독자에게 빛을 닿게 하는 창인 것입니다. 시인의 가치는 영웅 정신이나 이상적인 강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인은 창으로서 빛을 방해하지 않고 빛을 향해 마음을 닿지 않을 때에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⁹¹⁾ 라고 말하고 시인은 빛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빛을 향해 가슴을 열고 있어야 하지만 자신이 빛 그 자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인은 결코 빛 그 자체일 수는 없다는 생각, 시인은 “현실을 향해 열린 마음”⁹²⁾과 “진실을 투과시키는 능력”⁹³⁾을 가질 때에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Hesse의 진지하고 검허한 자세와 투철한 작가 정신을 엿볼 수 있다. Hesse는 한 여성 독자에게 토로한 것처럼 시인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⁹⁴⁾으로서, 그리고 또 자신의 고뇌, 체험, 신념을 “고

88) Briefe, Glückwunsch für Peter Suhrkamp. G.S. Bd.7. S. 783.

89) B. Zeller: Hermann Hesse. S. 256~S. 257.

90) Briefe, An R.J. Humm, Zürich. G.S. Bd.7. S. 610.

91) Betrachtungen, An einen jungen Kollegen in Japan. G.S. Bd. 7. S. 461.

92) ebd. S. 461.

93) ebd. S. 461.

94) Briefe, An eine alte Leserin. G.S. Bd.7. S. 773.

백하는 사람”⁹⁵⁾으로서 자신처럼 괴로와하며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다른 탐구자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의 “작고 한정된 임무”⁹⁶⁾를 기꺼이 충실하게 수행한 작가였다.

참 고 문 헌

1. Texte

Hermann Hesse: Briefe. Gesammelte Schriften Band 7. Berlin u. Frankfurt am Main 1957.

Hermann Hesse/Romain Rolland: Briefe. Zürich 1954.

Hermann Hesse: Betrachtungen. Gesammelte Schriften Band 7. Berlin u. Frankfurt am Main 1957.

Hermann Hesse: Traumfährte. Zürich 1959.

Hermann Hesse: Die Gedichte. Berlin 1957.

2. Sekundärliteratur

Gotthilf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Nürnberg 1954.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Hamburg 1966.

Franz Baumer: Hermann Hesse. Berlin 1961.

Rudolf Koester: Hermann Hesse. Stuttgart 1975.

Edmund Gnefkow: Hermann Hesse. Freiburg 1952.

Bernhard Zeller(hrsg.): Hermann Hesse. 1877-1977 Stationen seines Lebens, des Werkes und seiner Wirkung. Deutsche Schillergesellschaft Marbach 1977.

Heinz Stolte: Hermann Hesse. Weltscheu und Lebensliebe. Hamburg 1971.

Fritz Böttger: Hermann Hesse. Leben, Werk, Zeit. Berlin 1974.

Dank an Hermann Hesse. Reden und Aufsätze. Frankfurt am Main 1952.

Volker Michels(hrs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as Glasperlenspiel”. 1. Band/
2. Band. Frankfurt am Main 1973~1974.

95) ebd. S. 773.

96) ebd. S. 773.